남성의 뇌기능 저하는 여성보다 3배 빠르다.

인간의 뇌기능은 여성 보다 남성쪽이 빨리 저하하고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언어나 윤리적 추론능력에 관계한 뇌세포를 잃기 쉽다는 새로운 說이 美펜실베니아大 연구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연구팀이 18세부터 80세에 이르는 건강한 남성 34명과 여성 35명의 뇌를 MRI로 진단한 결과, 연령과 함께 뇌세포의 위축은 남성쪽이 여성의 3배나 빨랐고 또 감정에 관계하는 대뇌중심부에 비해 논리나 계획을 담당하는 피질세포가 빨리 소실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의 경우는 언어나 논리적사고를 지배하는 뇌의 좌반구와 비언어적인식능력에 관계한 우반구세포의 퇴화속도가 거의 비슷했지만 남성은 좌반구의 퇴화가 우반구에 비해 2배나 빨랐다고 한다.

"술이 動脈硬化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옛말"

최근 일본 오오사까의 대연구팀은 술을 마시면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때에 운송역할을 맡는 단백질의 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는 것이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혈관벽에 쌓인 여분의 콜레스테롤은 유용한 콜레스테롤에 의해 빼내지게 되며 이 여분의 콜레스테롤은 전송단백의 중개로 간장까지 운반되어 여기서 분해되거나 재이용되거나 한다.

오오사까大연구팀은 술을 습관적으로 마셔 유용한 콜레스테롤치가 정상의 약 2배이상인 42세~70세의 남성 7명의 혈액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이동시키는 전송단백의 활성이 보통사람의 2배·6배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콜레스테롤을 간장까지 운송하는 역할이 잘 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은 유용한 콜레스테롤의 형태로 대부분 축적되어져 버리게 된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또 이 사람들에게 1개월의 금주를 해보았는데 1개월 후 이들의 운송단백질의 활성은 보통사람의 6배에서 10배까지 회복되었고 유용한 콜레스테롤의 양도 감소해 정상치에 가깝게 되었다는 것. 또 중년층 고령층 남성 50명의 혈액검사에서 알코올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전송단백의 활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부각되었다.